

돼지열병 주범 멧돼지 사체 처리 엉망

전남도 등 예산 핑계 기본 매뉴얼 안 지키고 민간포획단에 맡겨 시료 채취도 않고 매몰 일수...지침 따라 처리하는 광주시와 대조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연일 발견되고 있는 데도,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의 기본적인 '야생 멧돼지 처리 매뉴얼'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수렵·포획된 야생멧돼지 개체수는 광주 7마리, 전남 305마리에 달한다. 전남에선 하루평균 15마리에 이르는 야생 멧돼지가 수렵 또는 포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만 20마리에 이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폐사를 포함해 수렵 또는 포획된 야생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렵·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체의 자체 소비를 금지하고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 매뉴얼'에 따른 사체 처리를 당부한다"는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수렵·포획된 야생멧돼지들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수렵인 자체 자가 소비, 지역주민 무상 제공,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왔다.

이전에 바뀐 환경부의 멧돼지 사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멧돼지 사체처리 방식은 두가지로 제한된다. 먼저 사체 매립을 위해서는 깊이 1m 이상의 구덩이를 판 뒤, 폐사체를 폐수 유출 방지용 비닐 위에 놓고 흙과 생석회를 번갈아 덮어야 한다. 사체를 소각할 경우에는 전문 소각장이나

이동식 소각 장치 등을 이용해야 한다. 야생멧돼지 한마리당 소각비용은 20만 원, 매몰비용은 1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식용 등으로 유통될 경우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정된 장소 등에서만 야생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도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기존처럼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를 민간포획단에 맡기는 등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 지난 30일 새벽 0시 20분께 여수시 소호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야생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돼 멧돼지가 현장에서 사살됐지만, 멧돼지 사체는 포획단에서 자체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순천에서 '로드킬'로 사

망한 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료조차 채취하지 않고 매몰처리 했다.

전남도 환경산림국 관계자는 "전남에서 하루에 사살·포획되는 멧돼지 개체수가 15마리 정도임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300여 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만 매뉴얼대로 사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사체처리반을 구성하고, 사체처리 계획을 세우는 등 전남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야생 멧돼지 처리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단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야생 멧돼지 포획 또는 폐사체 발견시 지정 장소에서 매뉴얼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간공원 의혹' 전 광주시 국장 구속

사업자 선정 부당 관여 혐의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들이 심사 공정성의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실시해 접수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계약점수가 잘못 산정된 부분을 재심사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검찰은 특정감사를 거쳐 업체 간 순위가 뒤바뀐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면허 렌터카 운전 10대

호남고속도로서 도주극

위험운전 차량과 접촉사고 광양에서 장성까지 질주

광양경찰은 3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A(17)군과 이를 쫓아가면서 보복·위협 운전을 한 B(22)씨 일당을 도로교통법위반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생인 A군은 지난 달 31일 밤 장성에서 타인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광양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여자 친구 선배인 B(22)씨 일당에게 제지당했다.

지난 1일 새벽 0시 20분께 광양시 중동에서 A군은 B씨 일당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차에 탄 채로 육을 하고 도주했다.

이에 화가난 B씨 일당은 차량 두대로 A군의 차를 추격해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앞뒤를 막아섰고, A군은 빠져나가다가 막은 차량을 추돌했다. A군은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장성까지 차차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 일당은 계속 길을 가로 막거나 위험 운전을 했고 또 다시 충돌사고가 났다.

경찰은 A군은 뿐만 아니라 보복 위험 운전을 한 B씨 일당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반려동물 한미당축제 3일 광주시 서구 광양동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19반려동물 한미당축제'에서 반려동물을 즐기러 많이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양파농장 가던 버스 추락 1명 사망·11명 부상

영광에서 전북 고창으로 농장일을 하러 가던 주민을 태운 버스가 논으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고창군 대산면 한 도로에서 A(60)씨가 몰던 25인승 미니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낀 구간을 달리던 버스가 코너를 돌다가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논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추가 사상자는 집계되지 않았다"며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31사단 박격포 사격 훈련 중 산불...소방헬기 출동 진화

육군 부대의 박격포 사격 훈련으로 산불이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광주시 소방본부와 육군 제31보병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 사격장 탄약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입아 20㎡ 정도를 태우고 출동한 소

방헬기 등에 의해 진화됐다.

31사단은 장성에서 평동 사격장으로 향해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군 당국은 탄약지에 훈련탄이 떨어진 후 연기가 치솟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할머니 속여 돈 훔치려던 대만인 보이스포싱범 검거

할머니를 속여 현금을 훔치려던 대만 국적 보이스포싱 조직원이 할머니의 기지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광주경찰은 3일 "고령자를 속여 현금을 절취하려한 보이스포싱 조직원 대만인 A(23)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여·71)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던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9일 입국한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포싱 조직과 연계해 B씨에게 국제전화로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 전자

레인지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고 있던 B씨는 A씨가 자신이 알려준 현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고함소리를 듣고 도망치던 A씨는 경비원 C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씨는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오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는 범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속이고 집안에 머물다 침입하는 A씨를 목격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성 신도 8명 20여년간 성폭행·추행한 교회목사 '철창행'

○전북 군산에서 여성 신도들을 20여년간 성폭행·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철창행.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간강 및 강제추행)로 A목사를 기소했다는 것.

○A목사는 주로 신앙심이 깊거나 가

정이 있고 나이가 어린신도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는 말 등으로 회유하는가 하면, 피해자 중 1명은 2009년 당시 15세였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간강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며 혐의를 부인.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